



사랑의 메아리

국제 ACN 설립

70주년

교황청 재단 고통받는 교회 돕기 ACN KOREA - Pontifical Foundation of the Catholic Church, Aid to the Church in Need

전화: 02-796-6440 팩스: 02-796-6439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67, 8층 (신수동, 대승빌딩)
이메일: info@churchinneed.or.kr 후원계좌: 신한 100-031-121620 (사)에이드투더처치인니드코리아
홈페이지: www.churchinneed.or.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aidtothechurchinneed

2017년도 제5호 · 8월 발행



“성체성사는 신앙을 위한
귀중한 양식이며,
사랑의 최고 행위 안에,
곧 생명을 낳는 자기 증여 안에
참으로 현존하시는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
회칙 「신앙의 빛」(Lumen Fidei)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생애 첫 미사를 거행한 한 사제가 기념 카드에 그리스어로 “ευχαριστούμε(감사합니다)”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ACN도 후원자 여러분께 <사랑의 메아리>를 통해 한 해의 활동에 대해 보고를 드릴 때마다 ‘감사’로 충만해집니다. ‘감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한 마음을 표현하는 가장 짧고 인간적인 단어입니다. 인간은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타인의 도움을 돈으로 살 수 있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삶의 당연한 일부였던 친절함과 배려가 이제는 서비스 분야의 상품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목숨, 자유, 은총 등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결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쾌락, 안락함, 교육, 경험, 안전, 건강 등 돈으로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은 우리를 만족시킬 수는 있어도 결코 행복하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기꺼이 이웃을
돕게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시는 하느님께로 우리를 이끌어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선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우리

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어 당신 아드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성체성사를 베풀었습니다. 성체성사는 감사의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성체성사를 통해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 주셨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세상의 모든 악함을 감사와 은총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시기 위해 자신의 몸을 기꺼이 희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상처 입음 가능성을 감수하며

기꺼이 이웃을 돕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움과 이기심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성체성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ACN은 후원자 여러분이 계시기에 수많은 사업들을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가장 성스러운 성체성사에 머무시는 그분의 힘으로 가능하며, 우리는 언제나 그분 안에 머무릅니다. 주님께서 성체 안에

현존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세우고 신학생, 사제, 수도자들을 지원하며 교리 교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영성체는 가장 귀중하고 필수적인 선물입니다. 프랑스 아르스의 본당 사제이셨던 요한 마리아 비안네 성인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보배도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영혼의 양식은 오직 하느님뿐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친히 우리를 먹이실 수 있다면, 우리 인간은 얼마나 귀중한 존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성스러운 성체성사에 현존하십니다. 어떤 조건도 없이 말입니다. 성체 안에 계시는 주님을 향한 사랑은 감사를 모른 채 몰락해 가고 있는 이 세상을 치유할 것입니다. 베드로 율리아노 에이마르 성인께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체는 그리스도만의 생명이 아닙니다. 성체는 모든 인간의 생명입니다. 인간이 한 세기를 발전하느냐 혹은 퇴보하느냐 하는 것은 인간이 성체를 얼마나 경배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국제 ACN 지도 신부
마르틴 바르타 신부



ACN 한국지부 · 가톨릭평화신문 공동 기획

파키스탄 교회, 차별 속에서 신앙을 증거하다

지난 5월, 고통받는 교회 돕기(ACN Korea)가 가톨릭평화신문과 함께 파키스탄을 방문했습니다. 가톨릭평화신문에서 먼저 5주 간의 특집 기사를 통해 파키스탄 교회의 이야기를 전해 드렸습니다. 이제 ACN 한국지부가 특별 보고서를 발행하여 파키스탄 신자들의 이야기를 들려 드리고자 합니다.

파키스탄의 형제자매들은 우리가 상상하기조차 힘든 희생으로 그들의 믿음을 지키며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그들에게는 사실 개종이라는 쉬운 선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파키스탄 신자들은 절대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물론이고, 조직적인 차별 속에서 온 가족이 위협을 받더라도 말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믿음을 자랑스러워합니다.

파키스탄에서는 그리스도인을 겨냥한 자살 폭탄 공격을 막기 위해 젊은이들이 성당을 지키고 있습니다. 고(故) 아카시 바시르도 성당을 경비하던 청년 자원봉사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2015년 3월 15일, 당시 20세였던 그는 운몸을 던져 자살 폭탄 테러범의 앞을 막아 섰습니다. 바시르는 자신을 희생하여 미사에 참여했던 본당 신자 1,400명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방문단은 파키스탄 제2의 도시 라호르에서 바시르의 가족을 찾아갔습니다. 또한, 바시르와 함께 폭탄 테러를 막다가 생명이 위독할 정도로 큰 부상을 입었던 두 청년을 만났습니다.

한편, 방문단은 신성모독죄로 부당하게 입건된 그리스도인의 편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파키스탄에서는 지금도 누군가가 신성모독법에 따라 감옥에 갇혀서 사형 집행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형을 선고받은 이유는 이슬람 예언자 무함마드의 명예 훼손으로 고발당했기 때문입니다. 저희로서는 쉽게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방문단은 한국에 돌아와 안타까운 소식을 또 다시 들어야만 했습니다. 각각 25세와 17세의 그리스도인 젊은이들이 신성모독죄로

고발된 것입니다. 만 17세면 아직 미성년자입니다. 이전에는 신성모독법의 피해자를 옹호하였다는 이유로 현직 장관과 무슬림 주지사가 암살당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키스탄에서는 주일 미사뿐 아니라 평일 미사에도 신자들이 성전을 가득 메웁니다. 라호르대교구장 세바스찬 쇼우 대주교는 “파키스탄 교회는 가난하지만, 신앙적으로 부유합니다.”라며 자랑스러워합니다. 방문단은 파키스탄 곳곳에서 쇼우 대주교가 말한 바를 보고, 듣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3월, 라호르대교구는 아주 끔찍한 일을 겪었습니다. 예수 부활 대축일을 맞아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공원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한 것입니다. 자살 폭탄 공격으로 인해 75명이 목숨을 잃고 340여 명이 부상을 당했지만, 생존자들과 유가족들은 테러범들을 용서했습니다. 쇼우 대주교는 그들을 “자비의 승리자”라고 일컬었습니다.

교황청 재단 ACN은 파키스탄에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ACN은 ‘부활절 테러’와 같은 끔찍한 사건을 막기 위해 방지책을 강구하며, 위기 상황에 따라 긴급 구호 활동을 전개합니다. 또한, 테러의 피해자들에게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성직자와 신학생, 교리 교사들에게 교육을 지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파키스탄의 유일한 가톨릭 TV 방송국도 지원하고 있는데 직원이 7명에 불과하며 200명에서 300명에 달하는 자원봉사자들이 24시간 방송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곳입니다. 방문단은 ACN 후원자 여러분의 사랑이 전해지는 지역을 직접 찾아가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ACN과 가톨릭평화신문의 파키스탄 방문에 대한 특별 보고서 <파키스탄, 자비의 영웅들>은 ACN 한국지부 홈페이지에서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글, 네이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서 ‘고통받는 교회 돕기’를 검색하여 ACN을 ‘팔로우’해 주시고 전 세계 형제자매들의 소식을 받아 보세요. 마지막으로 믿음 때문에 차별받고 고통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잊지 말아 주시고 연대의 손길을 건네 주세요. 무엇보다도 파키스탄의 형제자매들과 함께해 주시어 기도 중에 그들을 기억해 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믿음이 살 수 있도록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느님의 사랑은 진정 놀랍습니다. ACN의 후원금은 전년도보다 증가하여 1억 2,855만 유로(약 1,710억 원)에 달하였습니다. 물론 저희도 전 세계의 고통받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관심을 모으기 위해 언론 및 SNS 활동, 모금 캠페인 등을 통해 최선을 다했으나 하느님께서 후원자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셨다면 이 모든 일이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코린토 1서 제13장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사랑이 없다면, ACN의 활동은 “요란한 징이나 소란한 썰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다그칩니다.”(2코린 5,14) 여러분을 움직이고, 저희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진정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하느님께서 ACN을 통해 교회를 도우십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 여러분이 자비를 베풀게 하시고, ACN은 이를 토대로 140여 개 국가에서 그리스도교를 위해 수많은 사업들을 진행하며, 그로써 하느님의 뜻을 실천합니다. 전 세계 교구 두 곳 중에서 한 곳의 사제, 신학생, 수녀, 신자들이 여러분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러분께 감사드리는 동시에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분은 ACN을 자비의 도구로서 사용하십니다. 사랑의 공동체인 ACN의 자세한 활동 내역은 <연간보고서 2016>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ACN 총사무국 홈페이지에 기재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숫자는 숫자일 뿐입니다. 진정한 희생과 자비는 통계 수치만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ACN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여러분의 기도이며 여러분의 관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요하네스 헤르만
국제 ACN 대표



요하네스 클라우자
ACN 한국지부장

여러분의 사랑은 다음과 같이 전달되었습니다.

♥ 건설 지원 1,222건

ACN은 성전, 성당, 수도원, 신학교 등 건설 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그중 1/3이 아프리카에서 사용되었습니다.

♥ 미사 예물 1,435,888대

전 세계 사제 아홉 명 가운데 한 명(아프리카 14,403명, 아시아 11,293명 등 총 43,027명)이 ACN의 미사 봉헌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22초마다 ACN 후원자의 지향이 담긴 미사가 봉헌되고 있는 것입니다.

♥ 신학생 양성 지원 10,760명

2016년 한 해 동안 전 세계 신학생들 가운데 10,760명(아프리카 4,667명, 남미 2,900명, 동유럽 1,577명 등)이 ACN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전 세계 신학생 11명 가운데 한 명인 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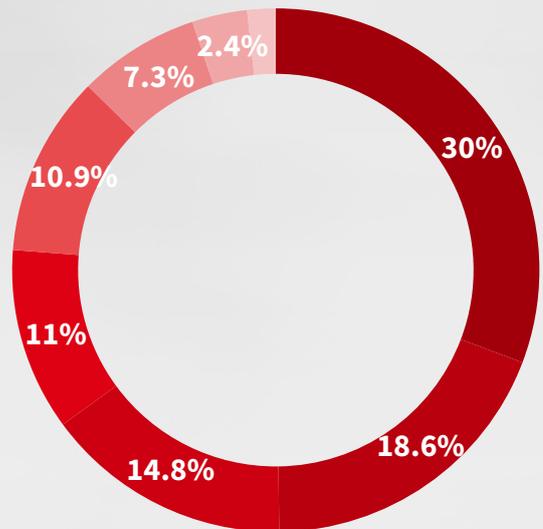
♥ 수녀 생계 및 교육 지원 11,080명

전 세계의 수녀 62명 가운데 한 명이 ACN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을 위한 지원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 운송 수단 지원 765개

ACN의 지난해 운송 수단 지원 내역은 자동차 375대, 오토바이 149대, 자전거 239대, 배 2척입니다. 이러한 운송 수단은 대부분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제공되었습니다.

ACN 지원사업



- 건설 지원
- 난민 지원 및 긴급 지원
- 미사 예물
- 평신도 교육
- 사제 및 수도자 양성
- 운송 수단 지원
- 여성 수도자 지원
- 가톨릭 미디어 지원

2016년 한 해 동안 총 5,303건의 사업 지원

ACN은 2011년부터 지금까지 6천만 유로(약 798억 원)를 중동의 전쟁 지역에 지원했으며, 2016년에만 1,820만 유로(약 242억 원)를 해당 지역에 원조 하였습니다. 2017년 올해에도 비슷한 규모의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ACN이 2016년 한 해 동안 지원한 사업 수는 2015년보다 900여 건이 감소했지만 사업 한 건당 평균 지원금은 훨씬 증가했습니다. 건설 지원이 전체 예산의 30%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난민 지원 및 긴급 구호, 미사 예물, 평신도 교육, 성직자 양성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2016년도 기부금 수입 (단위: 각 국가 화폐)

국가별 지부 (화폐)	2016년	2015년
오스트레일리아 (AUD)	5,339,639	3,728,957
벨기에/룩셈부르크 (€)	4,537,734	3,590,825
브라질 (BRL)	14,076,097	13,541,790
칠레 (CLP)	865,319,891	885,461,783
독일/베렌프리트재단 (€)	12,393,616	10,513,008
프랑스 (€)	29,490,022	36,590,066
영국 (GBP)	14,925,049	10,048,881
아일랜드 (€)	4,533,380	3,686,081
이탈리아 (€)	3,390,293	2,489,666
캐나다 (CAD)	2,916,682	2,982,720
콜롬비아 (COP)	573,847,671	296,187,402
몰타 (€)	212,155	124,653
멕시코 (MXN)	5,503,766	3,697,369
네덜란드 (€)	3,888,878	3,588,677
오스트리아 (€)	3,063,200	2,973,358
폴란드 (PLZ)	9,544,449	8,724,492
포르투갈 (€)	3,178,816	2,589,808
스위스/리히텐슈타인 (CHF)	9,966,333	10,984,475
스페인 (€)	13,170,152	13,219,164
대한민국 (KRW)	717,215,891	107,222,789
미국 (USD)	7,554,497	7,699,865
국제 총사무국 (€)	2,936,796	1,313,515
전체 수입 (€)	128,553,835 (약 1,710억 원)	123,735,178 (약 1,646억 원)



감사 인사를 전하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어린이들, 교회의 미래는 이 어린이들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수입	€	%	비용	€	%
개인 후원	84,039,954	65.0 %	사업 비용		
미사 예물	11,998,851	9.3 %	-사업 지원금	81,059,416	62.7 %
유산 기증	28,206,238	21.8 %	-후속 사업 비용	2,664,147	2.1 %
재산처분수입 및 세금감면혜택	3,986,917	3.1 %	-홍보, 언론, 사목 활동 지원금	16,646,664	12.8 %
기타 수입	321,874	0.2 %	총 사업 비용	100,370,227	77.6 %
소계	128,553,835	99.4 %	투자 비용	12,778,363	9.9 %
사업 외 수입	717,371	0.6 %	행정 비용	8,284,572	6.4 %
총 수입	129,271,207	100 %	총 사업 외 비용	21,062,935	16.3 %
			당기 순이익	7,838,045	6.1 %

해당 보고서는 각 국가 지부에서 보고된 자료를 취합하였으며, KPMG로부터 검토 받았습니다.

전 세계 148개국 후원

그 가운데 다음 10개국으로 가장 많은 지원이 전해졌습니다. (단위: 유로)

1. 이라크

2016년: 9,764,908
2015년: 10,699,379

2. 시리아

2016년: 5,903,252
2015년: 5,618,278

3. 인도

2016년: 5,547,265
2015년: 6,865,067

4. 우크라이나

2016년: 4,426,907
2015년: 6,252,613

5. 콩고민주공화국

2016년: 4,426,907
2015년: 3,349,377

6. 브라질

2016년: 3,221,132
2015년: 2,673,268

7. 탄자니아

2016년: 1,695,398
2015년: 2,362,922

8. 에티오피아

2016년: 1,540,842
2015년: 2,129,5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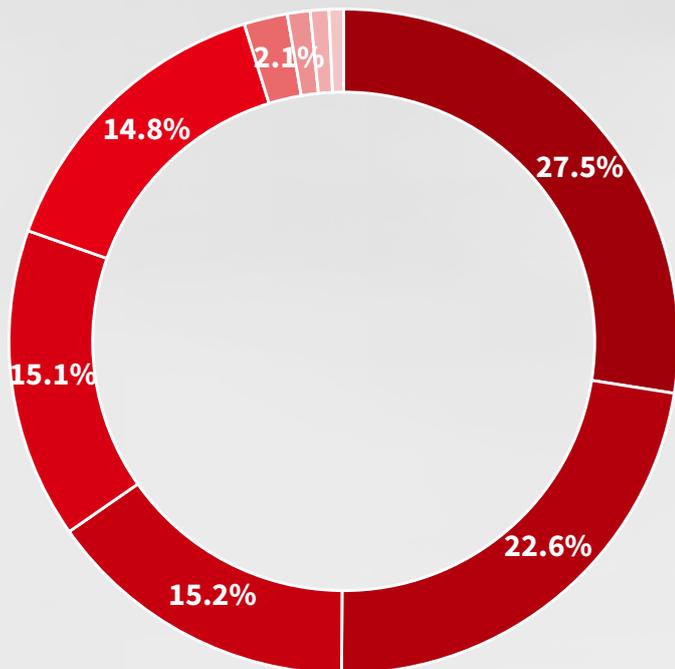
9. 마다가스카르

2016년: 1,393,297
2015년: 1,615,221

10. 쿠바

2016년: 1,392,676
2015년: 1,095,830

지역별 사업 지원



아프리카의 교회가 급속히 성장함에 따라 아프리카 사업 지원금이 증가하여 지난해 전체 예산의 34%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나이지리아 북부 지역과 케냐, 탄자니아, 마다가스카르 등 이슬람 극단주의가 만연하고 있는 국가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ACN은 그리스도교의 요람인 서아시아(중동) 지역에서 주로 긴급 구호 및 난민들의 생계를 지원했습니다. 그 밖의 아시아 지역에서는 중국, 베트남, 라오스 등 공산주의 영향권의 국가들을 도왔으며 인도, 파키스탄, 필리핀 등 힌두교나 이슬람 극단주의자들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받는 곳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유럽 중부 지역 및 동유럽 국가들에서는 건설 지원 및 교육 지원에 힘을 쏟았으며, 발칸 반도에서도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종종 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ACN은 연대 의식을 갖고 믿음이 살 수 있도록 전 세계의 고통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요한 1,14)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말씀은 인간에게 꼭 필요한 조건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복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소통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인도네시아 렘바타(Lembata) 섬에 있는 로사리오의 성모의 딸 수녀회는 라말레라(Lamalera) 어부촌의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복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어른들도 물론 자신의 영혼에 힘을 불어넣는 존재에 대해 알고 싶어 하며 복음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라말레라의 그리스도교 역사가 130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교를 위한 공간이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로사리오의 성모의 딸 수녀회는 선교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ACN은 수녀회에 **13,000유로(약 1,730만 원)**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후원자 여러분의 사랑으로 강의실 및 도서관과 예수회에 의해서 이곳에 처음 그리스도교가 전해진 역사를 담은 자료 전시실이 지어질 것입니다. 마리아 심프로사(Maria Simprosa) 수녀는 “저희 수녀원은 라말레라에서 유치원 2개, 초등학교 3개, 중·고등학교 2개를 운영합니다. 사목 활동과 사회 복지 활동도 병행하지요.”라고 설명합니다.

복음 말씀은 라말레라에서 뿌리를 내리고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로사리오의 성모의 딸 수녀회의 사랑은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21세기를 시작하며 우리에게 들려주신 **“사랑의 실천은 사랑이신 복음 말씀이 확실한 효력을 발휘하게 합니다.”**라는 말씀을 기억하게 합니다.

진정한 보물은 바로 성전입니다

카밀로(Camillo) 신부가 간신히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사실 카밀로 신부는 길 위에서 하루를 넘게 보냈습니다. 약속 장소까지 멀리멀리 돌아서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미얀마 사제인 카밀로 신부의 관할 지역은 안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극심한 장마로 도로가 온통 흙탕길이 되어 오토바이로 지나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카밀로 신부는 먼 길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는 500km 떨어진 마을까지 한 달에 한 번씩 방문하여 신자들과 기도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고해성사를 집전합니다. 카밀로 신부는 지난 일주일 동안 사인 리안(Sain Lian), 완칸(Wankan), 나웅 퀘(Naung Kwe)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마을 신자들은 신앙 생활의 중심지인 작은 목조 성전에서 카밀로 신부를 기다립니다. 현재 완칸 마을의 성전은 많이 낡아 보수가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이곳에 귀금속 광산이 있었기 때문에 지역 경제가 좋았으며 성전 건립이나 보수를 하는 예산도 자체적으로 충당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 광산은 모두 고갈되었고 마을 성전만이 유일한 보물로 남아 있습니다. 카밀로 신부가 ACN의 도움을 요청한 이유입니다.

ACN은 **4,450유로(약 590만 원)**을 지원하여 완칸의 보물을 지킬 것입니다.



완칸 마을의 보물 찬란하고 영롱한 빛이 보물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평화에 이를 수 있는 길

“어떠한 폭력도 결코 종교의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대화만이 평화에 이를 수 있는 길입니다.”

2013년 9월 30일, 로마에서 열린 국제 평화 회의에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우리 모두 마음 깊이 새겼으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는 알리카(AI-Liqa) 센터가 있습니다. 알리카 센터는 모든 종교인들에게 열려 있으며 누구든지 강연, 소통, 청년모임, 워크숍 등을 개최할 수 있습니다. 알리카는 바로 ‘만남’이라는 뜻입니다. 얼마 전 서로 다른 종교를 가진 청년들이 알리카 센터에서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청년들은 ‘다원적 사회에서의 삶’이라는 주제에 대해 숙고하고, 구체적인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알리카 센터에서는 3개월에 한 번씩 유대인, 그리스도인, 무슬림 간의 만남이 열리며, 세 종교의 지도자들은 ‘이슬람교에서 가족의 의미’, ‘이스라엘의 그리스도인’, ‘교육의 중요성’ 등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나눕니다. 무슬림들은 ‘여성의 존엄과 역할’이란 주제에 민감하게 반응했으나 타 종교인의 의견을 진지하게 경청하였습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종교 신자들이 생생한 대화를 통해 우정을 쌓고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종교 간 대화와 평화는 모두 ACN 후원자 여러분의 사랑으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ACN은 알리카 센터에 **2만 유로(약 2,600만 원)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폭력과 전쟁의 지역에서 화해의 씨앗이 싹터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나이지리아 가톨릭교회 역시 종교 간 대화와 화해를 위해 쉬지 않고 노력합니다. 오소그보(Osogbo) 교구는 사제, 신학생, 수녀, 교리교사들이 이슬람교에 대해 배우는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종교 갈등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교뿐만 아니라 이슬람교의 교리와 정신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나이지리아 국민의 2/3는 무슬림으로, 정부는 가톨릭 학교 여학생들에게도 온몸을 가리는 교복을 강요하는 등 그리스도교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으로 종교 간 갈등을 심화시키지만 이를 감내하는 것도 그리스도인들의 몫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킨쿤비(Akinkunmi) 신부가 상세한 워크숍 일정과 계획을 알려 주며 ACN의 지원을 요청하셨습니다. ACN은 **1만 유로(약 1,300만 원)를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우리 종교 지도자들은 평화의 소명이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황님께서서는 “대화과 기도를 통해 평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시며, “대화는 인간의 능력 이상의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기도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종교 간 대화, 만남과 이해의 시간

치유를 허락하시는 예수님

“사랑은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진정 자유롭게 합니다.” 클레르보(Clairvaux)의 베르나르도(Bernard) 성인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벨라루스 흐로드나(Grodno) 교구, 고난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성화가 걸린 피정의 집은 아직 완성도 되지 않았지만 수많은 이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해방을 경험합니다. 위기의 부부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새 시작을 약속하거나, 아이들을 가지지 못하던 부부들이 희망을 품습니다.

체슬라브(Czeslaw) 신부에 따르면, 삶의 어려움에 처한 이들이 찾아와 성화를 통해 위안을 받는다고 합니다. 절망을 겪는 이들은 예수님의 고난 앞에서 새로운 삶을 다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대부분 사랑에 배고프고 목마를 뿐 아니라 일용할 양식도 구하기 힘든 이들입니다. ACN은 사랑과 양식에 굶주린 이들이 든든하게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2만 유로(약 2,600만 원)를 지원**을 약속하였습니다.



산악 지역까지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라위의 면적은 가로 350km, 세로 850km 가량으로 아프리카에서도 특히 작은 나라 중 한 곳입니다. 말라위 국민의 1/4은 가톨릭 신자이지만, 이들 대부분은 산악 지대에 흩어져 살기 때문에 일 년에 한 번 이상 사제를 볼 기회가 없습니다. ACN의 지원으로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게 되자 프레드릭 친크호마(Fredrick Chinkhoma) 신부는 필 듯이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먼 시골 마을까지 방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산악 지대에 사는 신자들은 성체를 모시고자 저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저는 여러분께 온 마음을 다하여 감사드리며, 또한 이곳 형제자매들을 대신하여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저희는 미사 때마다, 그리고 기도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국제 ACN 대표
요하네스 헤르만 폰 쾰트비크

Johannes Freiherr Heereman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건설 지원은 저희 ACN이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지원 사업 중 하나입니다. 세계 곳곳에는 ACN 후원자 여러분의 후원으로 새로 건립되거나 보수되고 있는 성전, 수도원, 공동체 건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모두 성령께서 머무시며 기도가 끊이지 않는 곳이지요. 성당과 부속 건물은 지역 공동체에 깊이 뿌리 내려서 주민들을 튼튼하게 지켜 주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머무게 하는 진정한 힘이 됩니다. 지역 주민들은 이곳에서 빛을 경험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지역 교회와 협력하여 진행되는 니네베 평원 재건 사업은 바로 성전 건립을 시급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ACN은 그리스도인 난민들이 성서의 땅이며 신앙의 땅이자 고향인 니네베 평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파괴된 성당과 가옥을 수리하고 재건하는 데 최선을 다합니다. 물론 저희 ACN은 니네베 평원 재건 사업뿐만 아니라 의약품, 식량, 임시 주택 임대료 지원 등 다른 사업들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비록 이라크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지금 위기를 겪고 있지만, 저는 그들이 더 나은 미래와 안전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후원자 여러분께 언제나 깊이 감사드립니다.

후원, 사랑 그리고 감사를 전하는 편지

작은 희생을 바칩니다

나이 드신 아버지가 요즘 부쩍 한국 전쟁 때 겪은 일을 자주 말씀하십니다. 고향이 휴전선과 가까워 피난도 못 가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마음이 아프더군요. 지금 전쟁터 가까이 있는 분들은 얼마나 괴로울까 생각했습니다.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사순을 시작하며 보냅니다. 시리아에서 전쟁의 포화 속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위해 쓰였으면 합니다.

한국에서

특별한 소명

ACN은 가장 고통받는 지역의 형제자매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소명으로 정진하는 훌륭한 단체라는 생각이 듭니다.

독일에서

리끌 모아 보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기 20유로를 보냅니다. 제가 실업자이고 수입이 없기 때문에 많은 돈을 보내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저는 종종 푼돈을 모아 기쁜 마음으로 보내드립니다. 작은 개천이 모여 큰 강을 이루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느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포르투갈에서

딸아이의 용돈

15살이 된 저희 딸 엠마는 매년 생일 때 받은 용돈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의 선한 실천을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 중에 저희 가족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국에서



고통받는 교회
돕기

ACN KOREA

www.churchinneed.or.kr
[/aidtothechurchinneed](https://www.facebook.com/aidtothechurchinneed)
 @acn_korea
info@churchinneed.or.kr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67, 8층
 전화: 02-796-6440 팩스: 02-796-6439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31-121620 (사)에이드투더처치인니드코리아

